

행복한 금요 편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윤문원
작가¹⁾

아버지! 4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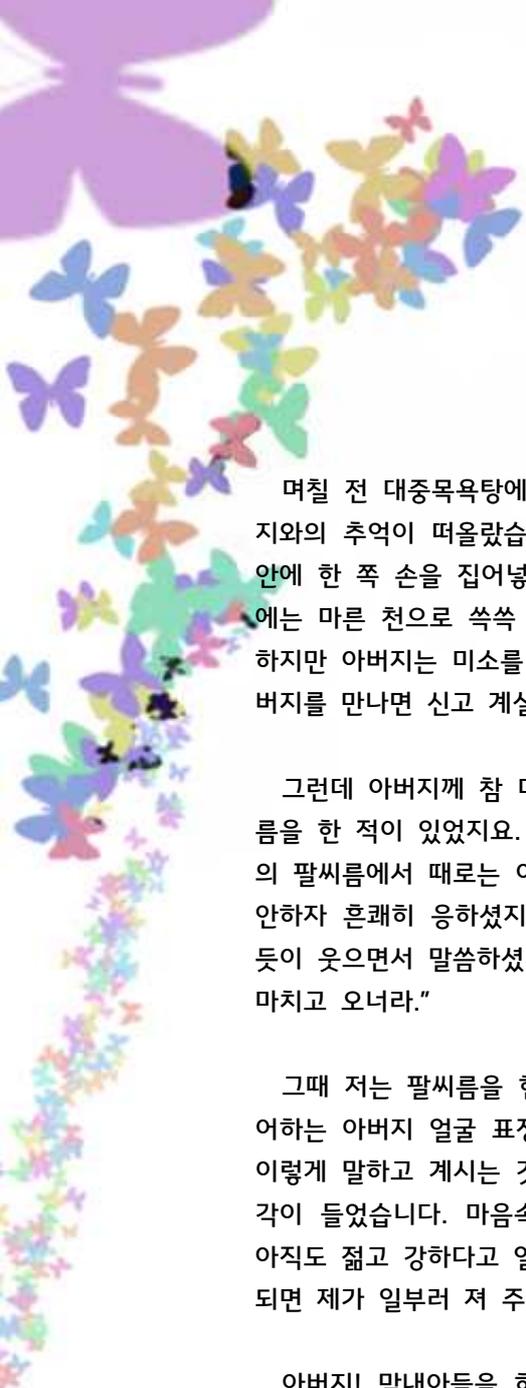
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온 기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지요. 몸살 기운으로 누우신 것이 별안간 호흡곤란을 일으켜 돌아가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께서는 "죽음이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내가 죽는 날이 오거든 화장을 해서 산하에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그렇게 안 되더군요. 알면서도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식 된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죽은 사람 평소 소원도 못 들어주느냐"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던 날, 화장장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따라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길 앞에서 어머니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천당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18살에 시집와 34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노래 부르는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노래 부르는 모습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윤문원 작가는 칼럼니스트, 경제평론가이시며,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대중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하고 구두 닦은 값을 지불하면서 순간 살아생전의 아버지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50여 년 전, 아버지 구두를 닦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구두 안에 한 쪽 손을 집어넣고 솔에 구두약들 묻혀 침을 튀겨가면서 아버지 구두를 닦았지요. 나중에는 마른 천으로 쓱쓱 문질러 광을 내보지만 구두닦이가 닦은 구두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기분 좋게 구두를 신으셨지요. 아버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신고 계실 구두에 반짝반짝 광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참 미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온 식구들이 모여 팔씨름을 한 적이 있었지요. 저는 팔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강하여 여러 차례 형님들과의 팔씨름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했지요. 그러던 중 제가 아버지께 팔씨름을 한 번 해보자고 제안하자 흔쾌히 응하셨지요. 그 결과 제가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대견스러운 듯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지요. "이제 힘이 많이 세졌구나! 이젠 어른이 다 되었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오너라."

그때 저는 팔씨름을 한 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견스러워 하면서도 무안하고 겸연쩍어하는 아버지 얼굴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까지 힘이 부칠 정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 아버지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어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 팔씨름을 하여 아버지에게 져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젊고 강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아버지와 팔씨름을 하게 되면 제가 일부러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젊은 아버지께서 저를 이기시겠지요.

아버지! 막내아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셨겠지요. 순한 막내아들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 시중을 열심히 들고 있겠지요. 갑작스레 동생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집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4살 아래 동생은 같이 커가는 동안 형인 저를 무척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엄격하게 대했으며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리기도 했지요. 비록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왜 친구 같은 형이 되지 못했을까?'하는 후회가 앞서기도 합니다.

동생은 제가 신혼인 때에 전기로 빵 굽는 기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빵 굽는 것이 귀찮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그 기계로 한 번이라도 빵을 만들었으면 하는 후회가 드는군요. 동생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제 차 트렁크에 단감 한 상자를 사서 실어주었습니다. 동생이 사망하던 그 순간까지 그 단감은 남아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가족이란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모른 채 지냅니다. 하지만 오염된 대기를 마시거나 높은 산에 올라 공기가 부족한 경우에 공기의 중요함에 대하여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듯이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지와 동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구순이 넘으신 어머니는 효성이 지극한 큰형님의 효도를 받으며 지금도 정갈한 몸가짐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매일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고 계십니다. 아마도 맑은 정신으로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겠지요.

아버지! 하늘에서 이 글을 읽어봐 주세요.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